

저적성루에 찌러 저죽으며 말장의 매자 황비대로 하야 달기를 쳐 죽이라 하다가 도로 허
 혼군에 밀치 배되어 저적성루에 찌러 저분골쇄신 하얏스니 이리한 난방에 거할 슈업서
 어 두은대를 바리고 밝은 곳을 취하야 왔사오니 바라건대 승상은 용납 하소서 자애왕대
 왕이 오심이 서기의 큰 복이라 대왕은 물너 하소서 하고 즉시 무왕세주 왕조가 무성왕
 화비회 혼군을 바리고 왔사오니 서기의 흥왕 할 중죄로 소이다 무왕왕이 은왕의 국척인
 가 밤비 청하라 황비회 전압해나아가 결하야 왕성 탐난 신황비호로 소이다 무왕왕올래
 장군의 덕의를 사모 하얏더니 이제 서로 만나니 다 행하도다 하고 잔채를 배설하여서
 로즐기니라

각설진당과 총병리정이 일즉 곤륜산도액진인의 데 재되어 오행둔술을 배와 버살이 총
 병에 거하고 부인은 씨삼자를 나흐니 장자는 금타나오롱산 광법던존의 데 재요 차자는
 목타니 구궁산 백하동보던진인의 데 재요 삼자는 나타이니 잉태한 지 삼년 육삭이 되도
 록 생산을 못하다가 부인이 한뼘을 엮으니 한도인이 외쇠막대를 부인 품속에 너귀날생
 각하니 한뼘이라 총병을 청하야 몽사를 말할새 말이 맞지 아니하야 육괴를 생하니 리정
 이 대경하야 한팔노 짝은 죽이 터지며 한옥동이 나오며 방에 향취진동하고 서귀집
 에 가득 하더라 올은 손에 한 쇠막대를 쥐엿스니 일흠이 건곤권이니 건원산 금강동래을
 진인의 조해라 리정이 대희하야 일흠을 나타라 하다 리정의 부자삼인이 다 서기 창업
 공신이 되니라

화설대사 문중이 홀노은 안면에 안자 주상이 실정함으로 병과사방에 이르 남을 한하더
 니 무성왕 화비회 서기로 감을 듯고 대경하야 주의게 알외고 상장군 조전으로 군사 삼만
 을 영솔하야 서기로 가서 회발과 승상 강자아를 문죄하고 화비호를 생금하야 오라 하니
 조전이 제아 오조되외 갖처감을 원하거늘 문대 재허락하니 조전 조되군사를 거나려서
 기성하에 가싸 홀을 청한대 자애왕 성탕의 군사 무삼일로 침노하는 고하고 좌우를 보
 아 왈 님나 가담지 할고 남궁괄이 응성출왕말장이 나아가 리이다 자애 허락하거늘 남궁
 괄이 일지병을 거나려 성외에 가진제를 버리고 진전에 나가 조전을 불너 왕장군 아무
 삼일로던 재군사를 서도에 다 하신다 조되답알네 유공이던 자명업시 스사로 왕을 일캣
 고 또 반신 화비호를 거둔고로 내던자의 조셔외 문대사의 장녕을 바다 문죄하랴 왔스니
 네 유공다려 반신 화비호를 매여 조가로 올니 면다른 죄를 사하려니와 그리치 아니면 너
 의 양화를 면치 못하리라 남궁괄이 소왈 조되야 유왕이 황음무도 하야 생명을 도탄하야
 강상을 크게 문허바리거니와 우리 유공은 법을 밧드려 지경을 직희매 만민이 낙업하니
 그럼으로던 해귀순하야 삼분던하에 이분을 두엇는 지라 이제 황장군이 그매 자화낭사
 과안해가씨의 참사함을 보고 참아 난방에 거할 슈업서어 두은대를 바리고 밝은 곳
 으로 올이니 무어 시불가하랴 네 서기를 침범함은 화를 자취함이니 밧비도라 가라 조
 되대로 하야 말을 노하칼을 좃추어 나오거늘 남궁괄이 마자싸 화십여합에 조되근력이
 진하야 남궁괄에 게사로 잡헌배되니 남궁괄이 조되를 결박하야 승상세 밧천대 자애령

하야 잡아드리니 조퇴썩지 아니귀늘자애왈 조퇴야네스사로잡힌배되여썩지 아니
 하는다 조퇴눈을부릅뜨고크게썩지져왈나는던조명신이요너는불과광주리것코면
 파든한소민이라내불행이사로잡혀시니죽을싸름이라엇지무릅쓸니요자애
 대로하야감참관을명하야 조퇴를버혀슈급을올니라재촉하거늘화비회급히싸라가
 니발셔조퇴를버히려목을느리거늘비회여성왈감참관이잠간칼을머므르라내한말
 이잇노라하고급히조퇴를못들고왈조장군이내말을들으라한대조퇴못드른체하고
 죽이기를기다리거늘비회또불너왈네던시디리의화를때대지못하는도다주왕의죄
 악이런하에가득하야사방의병패실날이업스니패망이조석에잇는지라셔기무왕은
 인덕이요순을싸할지라장군이셔기로도라오면잠녕이만세를누릴것이어늘희미함
 을때닷지못하야성명을보전치못하니뉘웃쳐도밋지못하라하거늘조퇴비회의
 일편설화를드르매정신이명낭하야왈화장군이내강상에게촉노를과이하얏시매용
 남지아닐가하노라비회왈장군이귀항할마음이잇스면내당사 이승상제말하리라
 조퇴왈장군의대은을넘어목숨을보전하면재생지덕이라엇지명을쫓지아니하리잇
 가비회자아에게조퇴귀항할일을갖초말하니자애왈항복하는자를죽임은의아니
 라하고전명하야노흐라하니조퇴침하아래닐으러절하고싸헤업대여고왈말장이노
 든하야존위를속범하얏스니맛당이정법할것이어늘이제일명을빌니시니감사한
 덕이대산갓사이다자애왈진심으로도라오면다한나라신해라무삼죄잇스리오조퇴

왈말장의가형조전이영종의잇사오니말장이가불너음이엇더하니잇고자애히하니
 라차설조전이조퇴사로잡혀감을보고변민하더니이윽고조퇴도라와전후사상을말
 하고갓치가기를청하거늘조전왈우리형데셔기에항복하면부모쳐재썩을면치못
 하리니우리마음이안락하라찰하리충절을죽히여죽음이가하도다하더니문득한계
 교를생각고조퇴다려여차차하라하니조퇴승상부에도라와자아씩고왈가형의말
 이형데셔로순치되여항복코자하나제장의우음이되겟스니승상이당사이한장슈를
 명하야부르시면체면의조흔가하나이다자애좌우를도라보아왈뉘조전을청하라갈
 고황비회왈말장이가지이다자애히하거늘비회조퇴로더부러당영에이르니조전이
 원문에나와마자당에들며좌우의도부쉬다라드러비회를결박하거늘비회대대왈이
 간사한역적아은혜를원슈로감는다조전왈근력을히비치아니하고반역을잘잡앗다
 하고철삭으로결박하야함거에잇고급히회군하야오관을향하고다다라날새이십오
 리류산어귀에다스르니포성이이러나는곳에한장쉬크게워여왈조전아무성왕을편
 히되시라내승상의령을바다예와기다린지오래도다하고다라드니조전이노왈내셔
 기장졸하나도상치아니코조전반녁을잡아가니내게관계업도다하고칼을춤추어다
 라들거늘신갑이개산대부들드러마자이십여합을싸홀새신면이문져영중에돌입하
 야황장군을구하야말을재촉하야영을쉴코살출하거늘조퇴신면을보고계교의싸
 전줄알고다라나니이원래자애신갑신면남궁괄을미리보낸이라황비회말을

달너나아가조전을사로잡아나려대말이잔적야강승상의괴묘비계를면할소냐하
고결박하여성니로드러오다차설조리목숨을도망하야닷다가길을일히이경서분에
전면의남할소래진동하며화광이충던한가온대한장쉬나아오니이는남궁괄이라크
게웨여말이간사한조되야밤비목을늘희여내칼을바드라하니조리말장군아일로
생도를빌니시면후일결초보은하리이다남궁괄이대갈일성의조리를사로잡아도라
오다황비회승상세사레말승상의묘략이아니런들역당에독슈를면치못할번하얏나
이다자애말조리동정기간사하기로내장계취계하야삼장을보니엿노라하니제장이
열복하더라신갑신면남궁괄이조전조리를잡아청력하거늘승상이조전형대를말니
고대말필휘귀계로써나를속인다군정관을명하야내여버히라하니조리부르지저
원앙함을애결하니자애말필휘간사한계교로충냥을해하야공을바라다가사로잡혔
스니무삼말을하는다조리말가형말이우리부되조가에잇스니우리형데항복하면부
모는다양화를밧갯다하야저근계교를베프다가승상에게죽사오니정디인즉원앙하
여이다자애말그러할진대나다려의논하면너의가권을무사히옴겨을것이어늘네
웃지그러마음을먹지안이하얏는다조리말말장이노둔하와조흔씨가업서이디경을
당하얏나이다하고눈물이비오듯하거늘자애말네진정부위잇는다조리말말장의일
은황장군이이다나이다자애황장군다려물으니대말과연잇노라하거늘자애말그
러면네형조전은두고너만잔첩을가지고여차차하야네가권을다려오라조리성

야하야조가애가문대사를본대말네이급히온다조리말말장군새서기에이르러말
장의형대서기장수신갑신면등으로연일접전하대상승부상하야자웅을미분할사이
에사슈관한영이량초를응부치아니하야삼군이유리니대저량초는삼군의성명이라
말장이부득이성야하야왔스니바라건대대사는량초와군사를더하야유셔야상국위
엄을밧내고황비호를사로잡아오리이다대말침음반향에말전에화패와령전이잇거
든한영이엇지량초를말치아니하든고하고즉시삼천인마와량초를점검하야조리를
유며말밧비성야하야가라로워다시대장을점고하야갓치셔기를파하리라지체치말
나하니조리량초와인마를총령하고가말이가권을다리고급히조가를떠나서기
로가니라잇때문대새조리를보낸지삼사일후에조리가권다려갓단말을듯고자연심
새번되하야한패를엇고박안대호말내간계에싸졌다하고괴운이막혀말을못하다가
문득생각고청룡관총병장계방으로십만병을유어셔기를철새신위대장군구린으로
청룡관을직히고화패영전을유어성야하야가라내똥뒤를니어가리라장계방이령을
듯고군을거나려호호탕탕이나아가셔기성오리에하채하니방포남할소래던디진동
하더라

차설서기탐대보하되청룡관총병장계방이십만병을거나려남문근처에안영하얏다
하거늘자애황비호다려문말장계방의용맹이엇더하노대말장계방은좌도방술재라
환술로사람을상하되님진하야셔로대적할지음에성명을불너아모야말을아니나리

고어니 때를 기다리시오 하면 말나리는 줄모르고 절노나려져 사로잡히나니 제 장에게
 분부하여 성명을 등치말고 싸호게 하소서 자애 응낙하고 싸호을 도스니 장계방이 크게
 진문을 열고나오니은 갑에은 두구에 장창을 들고 흰 말을 타고나오니 그 형세 추상갓더
 라자애 청초마우해도 복을 입고 흥안 백발에 손에 자옹보검을 쥐고나오니 진짓선풍도
 골이라 장계방이 보고 심중에 칭션하고 자아를 가라쳐 왈 강상아네은나라 신하로나라
 를 배반하고 희발을 도아 반신황비호를 바드며 또 제게로써 조전 조퇴를 사로잡으니 그
 죄관영한지라 빛비황비호조전형 데를 보내라 그러치야니면 옥석이 구분하리라 자애
 소왈 장군의 말이 어울흔듯하나엇지 못하얏는 다어 진신하는 님 군을 같히고어 진
 새는나 무를 갈 횡다하니 황장군바듬이 무어시불가하냐이 제련해다만하되 우리 군신
 은법을 지히여 신절을 다하거늘이 제군사를 발하여 침범하는 다 제방이 바라보니 황비
 회자아 것해잇거늘 대호왈 반적 황비호야 내 칼을 바드라하고 비호를 취하니 비회마자
 싸화십여합에 계방이 대호왈 황비호야 말을 나리지아니 하고다 시어느 때를기 달일고
 하니 비회말게나려지는 줄모르고나려지거늘 주괴나느드시 제방을 취하니 비포등이
 비호를 구하야도라오다 계방이 주괴에 성명을 부르니 주괴말게나려지거늘 계방이 사
 로잡아가고 남궁괄은 풍림과싸호더니 풍림이 입으로 거문연기를 도하니 변하야 큰구
 슬이되야 남궁괄을 쓰러말게나리쳐 사로잡아 황비호와 한가지로가도아 조가로보내
 여 처결하라 하더라

차설션시에 진당 관총병리정의 데삼자나라가 건원산 금강동태을 진인의 데제되얏다
 니일스은진인이나라다려왈이제은왕이실덕하야련해분스하니네 밤비하차하야서
 기에가네사속강상을 돕고 성주를 섬겨 만민도탄을 전저공을 세우라나라 만심환희하
 야사 부를 하직고하산할새 풍화류를 타고 회침창신을 고표피랑을 차고서기로가 승상
 부를차져자아압해나아가 절하야 왈 사속아 데재왔나이다 자애 왈네 워다나라 왈 데자
 는 건원산 금강동태을 진인의 도데리나라사 워명하사사속을도아공을일우라하시
 기로왔나이다 자애 대희하야 장계방이 도술노량장이나사로잡힌말을져스이하니나
 라왈사속은패렴치마소서 데재한번나가시험하리이다하고 풍화류를 타고 진전에나
 서며 웨여왈 장은 밤비나와 자옹을결하자하니 탕진으로셔한장쉬나와 맛거늘나라
 왈네 장계방이다대왈나는 장총병의 선행관 풍림이어나와니는 워다나라 왈나는 강승
 상의사질나타라네 죽기를앗기거든 밤비장계방을내여보내라 풍림이대로하야 낭아
 끈을 두루고 달녀들거늘나타마자 슈십합을싸호더니 풍림이나라를 향하야 입으로 겁
 은연기를로하니 변하야사발만한구슬이되어나타의 낫출갈기거늘나타우어왈네술
 법이정되아니라하고 손을드러한번가르치니 그구슬이 스러져거늘 권을드러풍
 림에 엇개를치니 근골이 싹쳐졌스나게오목숨을도모하야다라나는지라계방이대로
 하야창을신을고나와나타를가르쳐대대왈나의 선행관 따린나타인다나타대갈왈네
 일흠을볼으면말세나리게한다하니내일흠을백번이라도볼으라하고다라들거늘계

방이대호알나타야슈래에나리지아니하고다시어느때를기다리소요하되나타가나
 려지々아나하니연하야체변을불으되아니나려지거늘계방이대경왕사부의비밀이
 주신술법이다허새로다하고망황할지음에나타건곤권으로좌편엿개를치니근골이
 싯혀져다라나거늘나타가탕중에돌입하야옥을새치고주괴남궁괄을구하야도라오
 다차설장계방풍림이패잔군을거려찰주하고상처를조리하더니당야에황비호나
 라남궁괄주괴충돌하야풍림을버히고계방을취하니계방이하날을우러々동곡하고
 목질너죽으니라차설문대재장계방이전망함을듯고대경하야중장을모화의논하되
 이제강상이이렷듯강성하니뉘나라를위하야서기도평할고말이맛지못하야셔좌
 군상장군로웅알말장이원건대한번복쳐셔기를멸하리이다하니문대재왕로장군이
 년괴만흠을념녀하노라로웅알장계방풍림이다필부지재라시무를모르고패망하엿
 나니물웃장쉬되여군사쓰는법이몬저던시를살피고다음에다리를보고나종인화를
 깨다라능히감하며능히부드러오며위대함을능히편안이하며화를능히복이되게하
 며일흔것도능히찾고죽은것도능히살게하며번해불축하야지피지리라야가히만견
 만승이니이것이장슈되는되라말장이원건대한번나아가공을일우리이다하니대재
 왕장군이비록늑엇스나장재이러함을몰나도다하고주왕세주하고비중우흔으로참
 군을삼고군사오만을말하야행하게하니라화설잇때는하절이라군사들이철갑을납
 고더위를견대지못하야게오하로이십리식행하매로웅이군사를재축하야셔기에다

다라슈음을의지하야룡괴를세우니레담이승상부에보한대자애무길남궁괄로군사
 오천식거나려기산령산에진을쳐하야곰도적을막으되장졸이다모의한벌식가지고
 잇다가내령대로하량장이청녕하고나오며일이되잇때극렬이어늘모의난무엇에
 쓰려하는고삼군이다의혹하되장녕을어기지못하야가지고가니라자에황비호다려
 왈그대는오백군을거나려괴산동녀정결한곳에대를모흐되놈기일장은하고그우해
 슈백인이용남게하야내일계명에계교를행하게하라하고그날삼경에자애목욕재계
 하고향축을밝히고하날계제하고머리풀고발벗고장대에올나인검을집고곤륜산을
 향하야내번절하고부작을살오더니이욱고운하사면으로이러나며바람이크게부는
 지라계장이다깃거왈이런성념에서복종이이러나더위를업시하니이는하날이우리
 로하야금성공계합이라하더니백설이분々하야정히엄동갓더라날이밝으며자애다
 시장대에올나행황괴를두루니운위거치고백일이조요하더니대소장졸이다닐으되
 승상의신괴묘산은비할대업다하더라자에남궁괄무길을불너왈너희각々도부슈이
 심명식거나리고탕영의드러가적장을잡아오라량장이청녕하고가니라잇때탕영장
 졸이더위를견대지못하다가바람이이러남을보고셔로즐기더니문득대풍이이러나
 며백설이나리니도로혀치움이엄동갓흔지라삼군이포의철갑으로엇지견대리요장
 졸이다어려죽고혹눈의싸히여죽으며로웅비중우흔제장쉬다어름속의문첫거늘남
 궁괄이도채로어름을쓰고삼장을잡아내어슈래에설고본진으로도라오니삼장이어

락다가 녹으며 점々 인사를 찰혀 이르러 안자 살피보니 사면의 금갑 홍포한 장쉬보검을 들
 고 들녘는 자라 삼장이 고이녀여 아모리 할 줄 몰으다가 장상을 바라보니 한사람이 홍안
 백발에 머리에 락건을 쓰고 몸의 도복을 남고 손의 행황기를 들고 안젓스니 이는 강승상
 이라 로 응이 소래 질녀 왈네 요 괴로운 술법으로 락 조대원슈를 이대지곤욕하는 다 자애
 복지져 왈네 락시들 몰으고 무고히 군사를 일호여서기를 침노하는 다 비중우 혼은 썩러
 업대여 아모 말도 못하고 오죽 로 응이 일셔 안조며 눈을 브릅뜨고 썩짓기를 마지아니 하
 거늘 자애 또 썩지져 왈 우리 주공이 어진 덕을 행하여 만민이 열복하고 삼분 락하 의이 분
 이셔기로 왈스니 요 일을 쓰러 바리고 도탄에 든 백성을 건지려 하거늘 내이 등이 엇지 락
 시를 모르고 스사로 죽기를 취하느뇨 밧비 항복하야 멸성지환을 면하라 로 응이 대절 왈
 늙은역적아네 국록을 먹고 벼살이 대부에 이르러 거늘 엇지 님군을 배반하고서기를 도
 아간사 한술 슈로 우리를 곤욕하는 다 내 임의네게 잡혀서니 다 만 죽을 썩름이라 하고 조
 금도 두려워하는 밧치 업스니 자애 좌우를 호령하야 내여 버히니라 차셜문래 재승상부
 에 한가히 안젓더니 사슈관 총병 한영이 글일을 올너 로 응의 전군이 할몰 하얏다 하거늘
 래 재박안대 규 왈셔기 강상이 이르러 번살군복장하야 락위를 향거 할이 래심하니 이 번에 선이
 왕 매쥬하 되셔기 강상이 이르러 번살군복장하야 락위를 향거 할이 래심하니 이 번에 선이
 셔기를 쳐멸하오리니 원페하는 백사를 상찰하사 색주를 멀리하시고 어진 정사를 닦고
 소셔하고 삼십만을 발하야 조가를 썩나 황하를 건너오관을 지나셔기 성남문에 일으려

찰쥬할새 일성포항에 삼군의 남함소래 락디진동하더라 체람이 승상부에 보하되 방금
 문래 재삼십만대 병을 거너려 남문 밧매 결진하얏다 하거늘 자애 왈 내 조가에 잇슬 때 문
 중을 보지 못하얏더니 이제 저의기 출을 보리라 하고 중장으로 더부러 썩러 상에 올라 바
 라 보고 탄왈 평일 문중이 장재 잇다 하더니 과연 이로다 하고 승상부에 드러와 재장을 분
 배할새 한도 재자아 압해나아와 절하야 왈 데자는 옥천산 금화동 옥정진인의 데즈 양진
 이 읍더니 사부의 명을 바다 사속 좌우의 청후 하려 왈나 이다 하더니 이 읍고 또 한도 동이
 와 절하야 왈 데자는 옥룡산 광법련존의 데자 금타이 읍더니 사부의 명을 바다 사속의 좌
 위 되려 왈느 이다 하더니 또 한도 동이 재장의 머리를 가지고 드러와 배알하거늘 자애 문
 왈져도 동은 락다대 왈 데자는 구궁산 백화동 보현진인의 데자 읍더니 사부의 명을 바다
 오다가 작게 방의 장슈 풍후 패를 만나 버혀 왈나 이다 하니 금라 깃태 잇다가 갈오대 이는
 데자의 아오목타로 소이다 자애 대 락 왈져 문래 사는 장게 방로 응의 위아니라 념네 무궁
 하더니 이제 리문삼형 데셔기로 도라오니 이는 주공의 홍복이로다 하더라 이날 자애
 성문을 크게 열고 일성포항에 대소장졸이 대오를 정제하야나오니 좌편은 나라가 풍화
 른을 타고 화철창을 썩을고 뒤해 락전금타목타 한독 통설악 호요 우편은 남궁 괘무길신
 갑신 면화 락화요가 온대는 자애 사불 상을 타고 뒤해 황비회 오색 산우를 타고나아오니
 위의 가장 엄숙하더라 탕영중에서 방포 일성에 등층 신선장 절도 영길 입여 경 등이 좌우
 나 락하고 룡봉기 아래 문래 재 후기 린을 타고나오며 손에 금편을 드러 자아를 가르쳐 왈

강승상아네곤류산명사로사례를이러듯모름은엇짐이노자애왈대우허동문하로엇
 지던명을어그리요법을받드러공번되이즉허여감히어지러은정사를아니키로백성
 이평안하고만물이무성하거늘엇지사례를모른다하나노래재왈네던자의명업시네
 님군을세워무왕이라하며반신황비호를바드니님군을배반함이아니며무죄한장졸
 을살해하니대역이아니나자애우으며대왈은나라님군이스사로강의를멸함으로제
 휘반함이니허물이엇지신하에잇스리요무성왕바듬은님군이바르지못하며신해외
 국으로감이당연한일이어늘님군이자반할줄은모르고신하만척함이부그럽지아니
 하며조정명판과군새다죽기를자취함이요서기에셔몬저그병함이아니라태사의일
 홀이팔방에셀쳤거늘이제또망녕도이동하니미련한뜻에는태재군을도로혀각々디
 경을지히여조흔낮으로몸이엇더하노병가승부를아지못하니청건대태사는세번생
 각하야위엄을덜게마르소서태재한번드르매북은빗치얼골에가득하다가황비회문
 득과아래섯심을보고크게소래하야왈황비호야나를나와보라황비회얼골보기어려
 오나압흐로향하야몸을굽혀왈말장이태사를리별한지슈년에오날々셔로보니원굴
 합을신명하리로다태재부지져왈만조부귀다네문에잇거늘일조에반하야반역을도
 와조정명판을살해함은어인일이노하고비회밋답지못하야태재일원대장을명하
 야반신을잡으라하니좌초대장군등총이말을달여독기를두루며나와황비호를취하
 니비회오색신우를노와마즈니장철이또창을쓰을고나와등총을잡거늘쥬영중에서

남궁괄이나와대적하니도영이말을달여나와잡거늘무길이나와대적하니여섯장쉬
 서로어우러져싸호매고각합성이던디진동하더라탕영에서한장쉬나오니이신환
 이라두엇개에날개잇스매제장쉬이그지못할줄알고두나래를떨쳐반공에소삿다가
 철퇴를늘고나려와자아를취하니자애사불상을타고셔로마자싸호니맞치랑룡이벽
 해를뒤놓는듯랑회공산에서발을닷뚝갓더라문태재쌍편을공중에서저나리다라자
 아에엇개를치니자애말게나려지매문태재머리를버허려할지음에나라풍화를고
 창을두루며크게웨여왈나의사속을해치말나하고자아를보호할지음에선갑이다라
 드러자아를구하야도라고나타는태사로부터사오합을싸호더니태재신편을드
 러나타를치니나라풍화를에떠러지거늘금타내다라보검을드러금편을막으니태재
 대로하야쌍편을드러금타를치니양전이창을드러태사를찌른대태재쌍편을드러양
 전의정슈리를치되조금도오동치아니거늘태재대경왈서기에이러한이인이잇슴을
 새닷지못하얏도다하더라

차설자애또진전에나와웨여왈오날너와자웅을결하리라하고양전을명하야문중을
 잡으라하니양전이태사를취한대등총이말을노화대적하거늘나라가나와등총을취
 하니장철도영두장쉬나와막거늘무길남궁괄이다라오거늘황던해마자싸호니태재
 자웅편을들어자아를취하니자애신편으로자편을쳐두조각에내는지라태재대호왈
 내보배를상하니내너와사생을결단하리라하고다라들거늘자애신편을드러태사를

치니 태재 말게 써려 지는 지라 길입여 경이 급히 구하매 태재도 둔법을 행하야 다라나니
 자애 일진을 대살하고 도라오다 자애 중장으로 더부러 의논왈이 제승제함을 타밤에 당
 영을 겁칙할 만 못하다 하고 제장을 분배하야 나아 갈새 나라 남궁괄 무길로 먼저 탕영을
 겁칙하라 하고 황비호부자와 신면신갑으로 뒤흘 접응하라 하고 양전으로 적진 우영의
 탕초를 불지르라 하고 당야삼경에 물미듯드러가니 태재 불우지 변을 만나 해심중에 드
 러엿지 할 줄 모르더니 후영에 불이러 남을 보고 더욱 놀나다라 날새 등총장절이 길을 아
 사동을 바라고 다라나더니 나라 금타남궁괄 무길이크게 웨여 왈 문중야 닷지 말나 하고
 고할하니 태재 엿지 할 줄 몰으더니 신환이 공중으로 내려와 구하야 다라나니 라차사 중
 남산옥계 동운중재 일々は은 되진 자를 불너 왈이 제태사 문중이 서기를 정벌하니 네 밧비
 하산하야 서기에 가네 황형무왕을 보고 네사 속자아를 도아 공을 세우라 하거늘 되진 재
 사부를 하직고 종남산을 떠나 두나래를 썰쳐 날새 한소래 풍되 일어나며 숲식간에 서기
 디경에 이르러 멀리 바라보니 문태사의 패병이 오거늘 이에 일진을 시살하고 서기성에
 드러와 자아 매배알하니 자애 왈 동은 어대로서 오느뇨 되진 재 왈 데자는 운중자문하
 되진 재 읊더니 사부의 명을 바다 황형무왕도 퇴읍고사 속을 도아 공을 일우라 하시기로
 오다가 문태사의 일군을 시살하고 왔나이다 자애 대회하야 다리고 무왕세 퇴여 왈 석일
 선왕이 여산에서 거두신 되진 재 종남산에서 도를 배호다가 이제 왔나이다 무왕이 인
 견하시니 되진 재 나아와 절하고 황형이라 일카르니 무왕은 어대라 일갓고 왈 석에 선왕

이 현대의 공으로 오관을 무사이나 오신 후 현대도 토종 남산으로 갖다 하더니 이제 서로
 모히니 익언경행이 업다 하고 자채를 배설하야 서로 즐기니 라차설문태재 패잔군을 거
 두어 기산철십리에 하채하고 기리탄왕내 자래로 정벌하얏스되 패한 배업더니 이제 하
 날이 성량을 망케 할이라 내선왕의 타고 하심을 바다 적담총심으로련심을 돌너 지못하
 니 이는 유상에 실정한 연괴라 장차 엿지 하리요 하고 장우 단탄하다가 한계교를 생각하
 고 회도에 드러가 무리도 우를 청하야 심절딘을 버리니 일은련절딘이 오이는 디렬딘이
 오삼은 풍후딘이 오사는 한빙진이 오오난 금광진이 오륙은 화혈진이 오칠은 별염진이
 오팔은 락혼딘이 오구는 홍수진이 오십은 홍사진이 진제가 흔약하거늘 자아가 면등
 도인등십위대선을 청하야 심절진을 파한 대사가 다시 삼산도에 가삼위낭낭을 청하
 니 일은운소낭낭이 오이는 경소낭낭이 오삼은 벽소낭낭이 라 구곡황하진을 치고 여려
 신선과 양전나타등을 모다 잡아가 두거늘 자아가 다시 원시련존을 청하야 단을 파하고
 세낭낭을 죽이니 문태재 여러 번 구병을 청하다가 모다 패하고 할 일을 서패잔군을 거나
 리고 초초근길식하야 청룡관을 차져 오다가 절용령에서 운중자의 화공에 죽으니 가련하
 다 성탕유상충신이 일도에 나라를 위하야 몸을 맞초니 라차설사 슈관총명한 영이 문태
 재 전망함을 조정에 보하니 쥐대경대로 하야 삼산관총명 등 구공을 명하야 백모황철을
 주어서기를 치라 하고 조서를 나리니 등구공이 차일괴병하야 서기성하의 이르니 자애
 군사를 거나려성에 나와 대진할새 탕영중으로 한장쉬나와 싸움을 도스니 남궁괄이 응

성출마하며 대호왕은 장쉬늬노대왕나는 등원슈의 선형관태란이라 하고 칼을 찹추어
 다라들거늘 남궁팔이 마자 싸화슈십합에 태란에게 패한배되어도라오니라 이른날등
 원쉬진전에 나와 싸움을 쳤거늘 자애또한진전에 서 몸을 급히 왕등원슈야이제던
 히유나라도도라움을 가히안자혜아릴지라 속히군사를 도로혀각각변경을 지히어생
 념으로도탄을업게함이 엇더하노등구공이대호왕네곤륜산명사로인신의례를아지
 못하고하날을거사려크게강상을문혀지르니그죄엇더타하리요하고말을달녀자아
 를취하니나타풍화륜을타고건곤권을드러등구공에엇게를쳐골철이싣혀져거의락
 마할지음에태란이구하야영의도라와릉성이싣치지아니커늘구공의쌀선옥이아비
 상함을보고마음에변민하야알히어한번나아가부친의원슈를갑호리이다구공왕모
 르미조심하라소제부병을거나려성하에와싸움을청하거늘나타응성출마하야풍
 화륜을타고나와대호왕네구중쳐너로일골을드러내여붓그러움을모르고감히장부
 와싸움을드든다하고회침창을들고나오거늘선옥왕오는장슈는늬노나타왕나는강
 승상의선형관나타이라하니선옥왕네나의부친을상한원슈잇스니오날々내칼을바
 드라하고니를갈며낫빛치북어지며말을노하츄추어다라드러나타를취하니나타가
 마저싸화슈합에선옥이생각하되내몬져하수하리라하고거죽패하야닷거늘나타가
 생각하되과연일개너재라큰싸움을견대지못한다하고급히싸로더니선옥이몸을도
 로혀며오광석을드러나타의뺨을치니나타가패하야도라와자아씩패한연슈를고하

나자애왕이후는너자도경적지말나하더라이른날등선옥이또와싸움을드々니황던
 해가기를원하거늘자애허락하니던해옥괴린을타고나오니선옥이말을쳐쳐나와당
 전하야문왕오는장슈일홍이무어신다대왕나는 무성왕의장자황천화어니와네어제
 돌노내도형을짜리든등선옥이다하고철퇴를드러선옥을취하니선옥이두어합을싸
 호다가닷거늘철퇴짜르더니선옥이문득머리를도로혀며오광석으로천화에면상을
 짜러거의찌러질변하다가도라오니라이른날등선옥이또나와싸움을드々나자애왕
 뉘나가대적할고양전이게히에있다가룡슈호다려왕사형이몬져나가대적하면내가
 뒤홀니어접응하리라하니용슈회허락하고두장쉬성문에나오니선옥이바라보미용
 슈호에형용이고괴홍악하야흔불부체하나강잉하야크게불너왕오는장슈는늬노용
 슈회답왕나는강승상문도용슈회라특별이너를사로잡으라하야왔노라선옥이돌노
 짜리니용슈회소반만흔돌노가로막으니짜리든돌이부셔져재갓흐며벽녘소래나거
 늘선옥이말을도로혀닷는지라용슈회짜르니선옥이머리를도로혀며돌을드러용슈
 회의목줄기를짜리니슈회말게찌러지거늘선옥이나는드시다라드러용슈회에머리
 를버히려하거늘양전이내다라대호왕나의사형을히치말나하고창으로지르니선옥
 이슈합을싸호다가돌노양전을치니무한々변해잇슴으로맛지아니하거늘선옥이연
 하야짜리되맛지아니하고호련전을노와선옥의목을무러고기한명이를씩여가거늘
 선옥이말게나려질변하다가진으로도도라와아품을견대지못하니등공이너의상합

을보고감상하야하더라
 차설양전이용슈회를구하야도라오니자애슈호의상함을근심하더라잇때등구공의
 부내과히상하야알는소래장박게들니더니맛참독량관도형손이운량하고드러와청
 녕할재장내의형성이대단하거늘도형손이장내에나아가등구공의게문안하니구공
 이나타에게여개를상하야근골이신히져났지못하노라하거늘도형손왈슈장의상쳐
 는념너하지마르소서하고호로병속으로셔단약한개를물어풀어마시며바르니
 즉시여상하더라도형손이또드르니장아래셔알는소래나거늘도형손이문왈이엇던
 사람의형성이니잇고구공왈나의설선옥이또한적장의게상하야알노라도형손왈이
 어렵지아니하니이다하고또단약을내여전과갓치하니즉시났는지라구공이대회하
 야장채를배설하야중장으로크게즐길새도형손이문왈자와와몇번이나짜화개신니
 잇고구공왈쉬러번짜화다패하얏노라도형손이우어왈당시의슈장이말장을쓰섯던
 들서기를발셔평복하엿스리이다하니구공이생각하되이사람이필경도술이잇도다
 하고선형관을주어선봉을삼으니도형손이본부군을거나리고서기성하에일이러
 여성대호왈나타야나와승부를결하라하거늘나타가응성출마하야보니선장이사책
 이남죽한아하라나타가양던티소왕네성명이무엇인다고형손이대왈나는등원슈선
 행관도형손이라하고다라들거늘나타가봉화륜의을나건곤원을두루니도형손이
 압뒤로뒤여닫니되혹나타의다리사이로도왕래하니나타가병의를쓸새엿셔오죽일

신의쌈만흔니더라도형손이웨여왈네몸이나에서크미내손을발하야공을일을슈업
 스니네류거에나려승부를결함이엇다하노나타가도형손의적음을업수히녀려류거
 에나려싸호더니도형손이곤선승을공중에던져나타의일신을결박하야사로잡아오
 니등구공이녕하야후영에가다서기를평정한후조가르보내여공을보하리라하더
 라주영담미나타의잡혀감을고한대자에대경하야제장으로도형손을잡을일을
 의론하더라이른날도형손이또싸호을도거늘황련히옥기린을타고나와대말이
 축생이감히나의도형을상한도형손인다고철퇴를두루며나아오니도형손이반철
 곤을드러마자싸하두합에곤선승을날녀황련화를또잡아도라오니등구공이대회하
 야술을주어공을하례하니도형손이술을취하야밋촌말로제도술을자랑하야왈원슈
 일즉말장을씻던들무왕과자아를잡아서기를발셔평당하얏스리이다하거늘구공이
 역시취중에실언하야왈도장군에말갓흔진대내설선옥으로그대배필을삼으리라하
 니도형손이말을듯고대회하야밤에잠을일우지못하고이른날싸호를청하거늘구
 공이허락하니라차설황련화사로잡혀숨을고하며자에크게근심하거늘양전이나아
 가고왈대자한번나아가도형손을잡아오리이다하고진전에나와형손을불너밋비나
 와자웅을결하자하니도형손이나와마자오합에곤선승을더쳐양전을결박하야원
 문에이르러보니한덩이큰돌이라도형손이히엿서할지음에양전이대호왈도형손아
 네이만술슈로나를속이라하는다하고두어합을싸호다가양전이호천견을노하도형

손을물어싸해셔르차자문득곳이업거날양전이도라와자아에게고왈도형손이
 흐로다라났시니셔기의근근심이되리니일즉방비하소서자애을히너겨한패를엇고
 대경왕금야에도형손이영을겁칙하리라하고급히좌우를명하야무왕을청하야밀실
 에되시고제장으로가셔무왕을호위하고양전을명하야차차하라하고밤을지내
 니라차설도형손이비슈를끼고당야삼경에쌍속으로형하야셔기상부에이르니등축
 이휘황한가온대제장이각々병기를들고좌우에삼넌하얏스때도형손이능히슈치
 못하고생각하되몬져궁궐에드러가무왕을죽이고다음에자아를취합이늦지아니타
 하고궁중에드러가무왕을잡하에나아가보니무왕은업고한아름다운궁녀잠을새지
 아니하얏는대촉하에살피보니선연한대되진짓경국지색이요보든바쳐음이라정육
 이불곳가치이러나천압고자한즉그궁녀이러나며한손으로도형손의먹살을잡고한
 손으로뺨을나라가게싸리니도형손이정신이아득한중숨혀본즉이곳양전이라제비
 록용맹한들어이하리요양전의한소래에군사내다라도형손을결박하야상부에일으
 니자애호령하야내여버히라하니군새도형손을잡아원문에일으려하슈하라할지음
 에간곳이업스니모다놀나더라

차설양전이자아에게고왈데자도형손의근본을아라오리이다자애왈도형손이또겁영
 할념녀잇스니슈히단녀오라양전이도둔법을형하야두루단이다가한곳에이르니이
 곳은협룡산비룡동이러정결한초옥이잇거늘나아가서문을두다리니동자나와청하

거늘양전이초당에올나보니곳구류손사백이라나가절하니구류손이답레왈네어
 이온다양전이도형손과싸호던말을져々히하며드르니도형손이사백문되라하니그
 놈의도술과곤선승출처를알고져왔나이다구류손이대경왕이놈이내호로병단약과
 곤선승을도적하야갓도다하고죽시양전을다리고산에나려자아영중에일으니자애
 마자레필에문왈도형의문도도형손에게여러번패하매도형을슈고로이청하얏스니
 바라건대도형은도형손을잡아주면다형일이하노라구류손왈자아공은과려치마르
 소셔하고답소하더니도형손이진전에와나아공을빚기들고곤선승을두루며의괴양
 々하야싸흠을도々거늘구류손이진문에나셔며불너왈져츄생아나를자세보라하니
 도형손이한번바라보매곳그스승구류손이라크게놀나디하로다라나고자하더니구
 류손이쌍을가라치며한번진언하니곳기가강철갓하야능히춘보를갈수읍는지라드
 디여싸해업대여말도못하고감히우러々보도못하거늘구류손왈네내단약과곤선승
 을도적하야하마성주와도형을해할번하얏다하고한손으로도형손을가라쳐곤선승
 을아셔도형손을결박하야상부로도라와자아에게을녀왈내데오든들져업츄의해
 를크게불번하엿도다하고도형은도형손의사생을임의로결쳐하라하니자애사레하
 고군사를호령하야도형손을내여버히라하니도형손이구류손을바라보고애걸왈사
 부야부귀는사람마다원하는배오빈천은사람마다슬희여하는배라데재일시미혹하
 야사부의단약과곤선승을도적하야부귀를도모하라하야삼산등구공을섬기디니등

구공이 공을 이루실 선옥으로 배필을 삼겠다 하기로 부귀를 누릴 가한 일이오니 바라건대 사부는 자비를 들리소서 구류손이 더욱히 생각하다가 자아를 향하여 왈 자아공아 내로 형손을 가르쳐 공을 섬기게 하고 저 축생으로 하여금 등 선옥과 성천하면 등 구공이 또한 서기로 올 것이니 그 일이 아람답지 안이 하라 자애 왈 내로 형손을 버려 한을 써스려 하얏더니 형의를 당할 것슬련우 신조하여 무사 하얏스니 내로 형손을 버려 한을 써스려 하얏더니 형의 말이 여차한즉 대저 등 구공 부네 서기의 올진대 이는 큰 복이 되리니 바라건대 형은 신기 묘산을 시험하라 구류손이 도형손의 맨 거슬그르고 왈 네사속상개 형례하라 도형손이 자아 압히나아가 절하여 왈 데자사속을 축범한 죄당々이 죽엄죽하거늘 이렇듯 용서하시니 몸이 맛도 록 견마의 힘을 다 하리이다 자애 대열하여 잔채를 배설하여 구류손과 제장으로 절기고 과적할 묘책을 의논할새 도형손이 주왈 말장이 임의 서기로 도라와스니 한번 나아가 공을 세워 왕죄를 속하여 지이다 자애 왈 네진실노 하면 내당々이 널노 하야금 등 선옥과 성천하게 하리라 하니 도형손이 대회하여 왈 만일 승상의 말과 같을진대 슈화라도 피치 아니 하오리니 원컨대 계교를 가르치소서 자애 왈 네 금야의 도망하야 왓노라 하면 저의 다마음 늦코잇슬 거시니 당야의 인마를 다리고 겁영할 것시니 네곳 때를 다내 응할라는 다도행손이 용약하여 왈 말장의 사취우해계시니 엇지 두마음을 두리잇가 하거늘 구류손이 또한 권하여 보내니라 초설도행손이 연망이 도라와 등 구공을 보니 구공 왈 도장군이 서기로 도라가 세객이 되여 왓는다 도행손이 대경 왈 원슈 엇지 말장

을이 대저 물나보시나잇가 말장은 원슈를 부모 갖치아 올거늘 의혹하심을 님사오니 찰하리 산잔에가 제일을 보낸만 갖지 못하오니 원컨대 원슈는 보중하소서 하고 소매를 열치고 표연이 가거늘 등 구공이 급히 불너 왈 로부의 희언을 개렴치 말나 하고 술을 주어 위로 하더라 이날 삼경에 자애 대々인마를 거나려 양영에 돌입하니 도행손이 나와 진문을 열고 맛거늘 일성포향에 남궁 팔무길신갑신면 등이 사면으로 총살하니 고탈소래던디 진동하더라 금타난목타후영에 드러가 옥을 깨치고 나라 황천화를 구하야 내나 나라 황천회합세하여 전후로 썰쳐니 사졸이 자상 천답하며 죽엄이 피갓고 피흘너 내가 되었더라 등 구공이 동을 바라 고다라 날새 다만 등 슈래란 등만 쓰르고 소저 선옥은 잔 곳을 물을 을너라 도행손의 일편정신이 등 선옥에게 잇는 지라 즉시 내영에 드러가 선옥을 츠지니 선옥이 불우지 변을 만나 급히 말을 달여나오다가 도행손을 만나니 도행손이 곧 선옥으로 선옥을 매여 서기성으로 오니라 자애 구공을 업살하고 군을 거두어 도라오다 등 구공이 아 들 슈래란 조병등으로 기산하의 이르러 패잔군을 점고 하니 겨오오 십여인이 요소서 선옥은 간 곳을 몰나 상감하야 하더라 초설 자애은 안전의 안자 제왕의 공을 표하고 자애 구류손을 대하야 왈 오날이 길일이 라도행손으로 등 소저를 마저 성천개함이 엇더하뇨 구류손 왈 나도 이 뜻이 이잇스니 맛당이 때를 일처 마르소서 자애 영하야 도행손과 등 선옥으로 성천할새 서비 십여인이 등 소저를 호위하야 화축동방으로 나아가니 등 소저 비록 용복을 갖 초앗시나 화용될 때의 붓그림고 분한 눈물을 먹음어스니 리화가 지에 비

썩림갓더라도행손이바라보고정신이표달하야만단으로위로하니등소제도행손의
 거동을보고분을참지못하야대말무지한필부야네엇더한무리완대주장을배반하
 고영화를구하야이러듯무례하는고하고로고등々하거늘도행손이우으며말소제비
 록천금지구나나도무명필취아니요협룡산문되라그러하나존옹과소제착상하얏슬
 써내단약이아니드면엇지회생하얏시며또내나라와황천화를사로잡은후존옹이소
 저로나의배필을정하자하신일은소저도임의아는배요내사부의명으로서기로은배
 나쥬인을배반함이아니요또소제임의내게사로잡히엿시매등소저도행손은런정한
 배필로삼군이다알지니소제비록어름갓치막고옥갓치조출할지라도뉘알니요바라
 전대소저는재삼생각하라선옥이머리를숙이고말이엿거늘도행손이소제마음을들
 닐가하야갓가이나아가옷슬잡으니소제붓그리움을이그지못하야손으로밀막으며
 왈일이리비록그러하나엇지급히핍박하느뇨명일부친게성한후성천하미늦지아니
 라하니도행손왈금일이길신이니엇지아름다운괴회를그르케하리요하고점々갓가
 이와의대를그르니소제죽기로써막다가역살히지며웃시폴니々소제비록전장출입
 하는장슈나실노녀재라엇지장부를대적하리요할일업셔웃슬벗기는대로두고말이
 업스니아리짜은대되낮에가득하더라도행손이이에불을물니고원암금니에나아가
 니운우지정이여산약해하더라이든날도행손부체일죽이러나소제를맛고도행손왈
 우리량인이강수상의무출함을넘어성천한은혜를사례아니치못할지라소제왈이일

은진실노맛당이스레하러니와나의부친이이제패하야어나씨의게신지모르니이인
 즈에도리리오원컨디장군은이뜻을승상게알위여두가지은전할구쳐를하게하소서
 도형손왈소저의말이올라하고두사람이은안전에나아가사례하고도형손이등소저
 의소회를알외니즈이왈등선옥아네이제주나라신하안히되엿스나네아비일향항거
 할야항복지아니하면오발병하야쥬멸코즈하느니엇지구쳐하면조홀고도형손이쥬
 왈선옥이이일노데즈와의논함을기를스속이획척을배페제부친으로하야곰서기로
 도라가면조홀듯하하얏는이다즈이왈일은어렵지아니하나선옥의참마음이다선
 옥이올나가썩리고왈천첩이임의주나라로도라왔스니엇지이심을두리잇고몸소나
 아가부친으로하야곰도라와항복게하리이다하느니즈이티희하야군교를말하야싸러
 가게하나라
 초설등구공이피잔군을거두어쥬찰하고하로밤을지낼후국새보하되소제일지인마
 를거느리고주나라고호를가지고원문의일으렷는이다하거늘구공이급히드러오리
 하니선옥이중군의나르러업더저체읍하니구공이급히닐으혀문왈내으혀야엇지하
 야저리하는다선옥이방々호루쉬웃갓식이음초며왈히이감히말을못하느이다구
 공왈내무술원공을미잇느냐갓마이와말하야라선옥이글오티히이규중녀즈로부친
 이실언하스강승상에게교에싸져히이스로잡혀핍박하야도형손과혼인하얏스니뉘
 웃쳐도밋출슈업느이다하고루쉬여우하니구공이말을드르니 심담이서늘하야반

향을말이업거늘선유이또나아와주항되히이임의실신항야도형손의체포되었소오
 나이제주왕이무도항야런히분분항미삼분런하에들이서기로도라갓스니그런의와
 인심을가히알거시오또노옹장계방문디셔다멸망항얏스니순역지되밖은지라이
 제부천이군스를다죽이고도라가시면유륙를면치못항시리니부천화화면항실바는
 주로도라가시면가히어두은디를바리시고밖은디로향항시미니바라건디야야는김
 허성각항소셔구공이녀의일편설화를드르미크계유리호저라반향을말을못항
 다가왈아히야네말이가장을호나다만내강자의게글슬항미붓그림지아니항려선
 옥왈이일은어렵지아니항니이다강승상이허심항사일호고공이업는지라부천이진
 키가시고자항실진디히이문져가영접항게항리니부천은뒤홀니어오소서항고승상
 부에도라와자아의게전후사상을고호디자의디회항야위의를찰혀성십리의나와구
 공을마즐식구공이마상에셔등을굽혀왈말장이저죄업고지혜천박항야이제귀항
 니바라건디용서항소서자의또호몸을굽혀압히는아가구공의손을잇글고왈장군이
 임의순역을알고도라오니무어슬혐의항며또영이나의문하스질의안히되었스내
 장군의게치스항노라구공이감겨항물이과지항더라초설스슈관한영이글을을어
 등구공이서기의항복항물고호디취디로왈등구공이침의후은을입고반적의게항
 니취나아가반적을잡을고간의디부비렴이주왈출전대장이요형이과면첩서를올나
 고픽항면두항나나이제국척중호스람을보너여서기를치면반적을가히스로잡으

리이다항니취왕경이호스람을천거항라비렴이주왈과주후소획이가홀가항는이다
 취왕경의말이올타항고즉시군령관을령항야빅모황월을발항야과취소획의게로
 보디나라스명이과주의니르니소획이조서를밧고심중의디회항야런스를관디항야
 보디고아들전총과부인양씨다려왈우리불형이달과를나하주의게드렸더니이무거
 흔거시부모의흔계를뜻지아니항고주왕을미후항게항야만면을도탄항디런하스람
 으로항야금나를한항니내호군을바리고명주를섬겨무도호거슬쳐멸항야후세의우
 음과괴를을면코저항느니부인에뜻이엇다항노부인이디회왈이일은우리모저의
 마음이로소이다항니소획이성을드려서기의항복항나라초설취적성루에잔치를비
 설항고달과와즐기디니스슈관한영이글을을여과취소획이서기의항복항다항얏거
 늘취디로항야박악디디항야왈취이도적을잡아짐의한을설항고항니달과것히잇
 다가올며주왕첩의아비적국의귀항항얏스니되당々이삼죽을멸항지라첩이엇지궁
 위에잇셔폐하를피시리잇고속히첩을죽여국법을밧히소서항고목이메여옥류방사
 항니취노를긋치고달과의등을어로만저왈어쳐야심궁에잇셔반일을엇지알니요부
 조립시간장을씩여화용을상호오지말나항고삼산관총병홍금의게조셔항고빅모황
 월을주어서기에가문죄항고소획을잡아오라항니홍금이조서를보고즉시군스를
 발항야서기성하에니르려찰주항고강상을청항야말항자항거늘저애륜전도복으로
 손에형황과를들고스불상을타고나오니홍금이마음의능々항야크게불너왈오는제

강상인다 조애달달연호거니와 장군의 일홈은 무어시 노홍금알나는 봉런정도원슈홍
 금이라니 희등이 신결을 지희지아니코 반신을 쳐결호미이 제특지를 밧드려여등반
 신을 잡아 국법을 밧혀실명의 도탄을 업게호리라 조애소왈네 대장이 되어 맛당이 괴들
 을 알지라이 제련하제취다 명진에 모아독부주를 쳐상녕의 도탄을 면호라호니니희
 하늘을 거역호야 무도호니 군을 돕지말고 명주를 섬겨봉후에위를 일치말나홍금이되
 미왈늘은 필 뷔엇지 감히어 지러은말을호노노호고말을노화나오거늘업히희속명
 이더로호야 급히총을 쓰을고나와홍금을 취호니홍금이본디 좌도방술사라마조슈십
 합을쓰호다가 거문과아리로들며잔곳이업더니뒤호로나와속명을버혀마하의나리
 처고또진전의나셔며대호왈뉘나와나를더쳐홀고호거늘등선우이말을달여나오
 며대호왈필부야니칼을바드라홍금이바라보니일원녀장이금투구의금갑납고나는
 드시나오니홍금이답지아니코칼을춤추어취호다가거문과를들녀여전이술법을행
 호라홀조음에선우이오광석을홍금에면상을따려거의락마홀변호다가영으로드러
 가고그후에픽호야서기의항복호나리
 각설션시에금탁삼형데승상게고왈데조의부천리정어진당관으로녕군호야밧게왔
 니이다호니조애대열호야급히나아가영접호야무왕게조현호고잔치호야즐기다일
 사은호도석와승상게절호야왈데조는금정산우허동도행런존의문도위희이올더
 니스부의명으로도승상의좌위되려오다가적장녀악의머리를버혀왔니이다호거늘조

애대희호야국정스를호이니라 초설승상이 무왕게알외디이제은왕이 무도호야련히
 다반호미동빅호감문환과남빅후악술과북빅후송응난이각사소제후를거느리고
 밧진에모혀독부주를쳐만민도탄을면케호니원컨디대왕은응련술인호사련하제
 후의뜻을조초인의지명을거느려밧진으로가사이다왕왈은왕이비록무도호야련히
 다반호나셔일선왕이이신별국을말나호신유언은상부도드른비라이제상부의말을
 좃츠면선왕의유언을행치아니미불효요도주왕을정벌호면불총이니사호호야금
 련하후세에불총불호를면치못호리니과상부도더부러신결을지희여주왕이과천
 선호기를기다리미또호호조치아니호노조애왈로신이엇지선왕의유교를저바리사잇
 고마는련히과약지아니호고모호한제취팔빅이밍제호되만일제후호나라도오자아
 니호면군스를음겨몬져련명거역호를버히고버거무도호니 군을치조호앗스오니로
 신이엇지국스를그르케호리잇고디왕은살파소서또산의성이주왕승상의말이우호
 로련명을밧들고아리로인심을술케호미니가허총군호술지도로소이다무왕이윤허
 호사산의성으로호야곰남궁팔무길을명호야가산에장터를모으고승상을소탕련보
 터원슈를비호시고빅모화일을더호스정벌을오로지호게호시고터일출스호서나
 락남궁팔무길노련터를호고리정되진조양전금탁묵탁신면으로좌우익을삼고위희
 신갑으로군정스를삼고원슈는무왕을되시고중앙이되고여러장쉬전조호호고군
 스록만을거느려호호탕사이나아가스슈관의니르러총병한영을버히고민지현에닐

으러 총병장수를 버히고 황하수를 건너 밍진에 이르니 그 약업시 모헌제 휘괄 박이
 제후에 군사를 합하니 일찍 육십만이 요장 쉬삼천여원이라 동백후강 문환과 북악 후송
 을 조현케 호시니 위덕이 스희에 밋츠니 런히 형심이 요만민이 열복호리 소이다 무
 왕이 겸양호야 왈소즈 발이 선왕의 위를 니었스나 덕이 적고 우미호야 열위현후의 무르
 치시물엇지 바라 리요 호시더라 초설원쉬췌후로 더부러 힘군호야 지나는 바의 추호
 를 불범호니 백성이 단스 호장으 로 맛더라 디진이 경스의 니르니 잇췌췌달 괴로 더부러
 잔치호야 즐기다가 팔백제후에 군서 성호에 일으물듯고 디경티로 호야 무왕과 강즈
 아를 췌짓는 조셔를 췌디 부은과 피로 호야 곰보니 엿더니 동백후강 문환의 개버힌티 되
 디은과 피의 아 들은 경췌동 곡호며 췌왕량진이 상티호미스 신죽이는 일이 업거늘이
 제적진에서 신의 아비를 죽이니 신이나 가싸 화국은 파신의 아비원슈를 갑호리이다 췌
 디희왕경은 진실노 충효디 장이로다 호고은 경췌로 삼천군을 거느려나아가 싸움을 도
 스니 강문환이 응성출마호야 왈네아비런시를 모르고 망녕된 말을 호거늘 내죽였거니
 와네마져 죽으라 호는 다은경췌대말 왈내아비 조셔를 밋드러 갖거늘네스신을 죽이
 니 이는 오랑키 무리라 너를 만단에 너원슈를 갑호리라 호고 칼을 췌췌어니 닷거늘 강
 문환이 디갈 일성의 은경슈의 머리마하의 나려지며 패병이 도라가 췌의 개알원티 췌간
 담이셔늘 호야 말을 못호더니 군서 췌보호되 췌병이 성을 철동호치 호고 급히 천다호거

늘 조인결이 췌왕신이 죽기로 췌 성을 지히리다 호니 췌허락호거늘 조인결이 군사를
 신척호야 성을 크게 지히리 강문환이 능히 췌지 못호거늘 자의 왈 조인결은 지혜 죽호고
 충렬잇는 장슈요 췌성이 높고 히지 갑호니 인력으로 호호비아니라 호니 제왕울우리 각
 도술을 힘호야 성에 드러가 너의 췌응호면 무어시어려오리요즈 왈 불연호다 제왕등
 이 성에 드러가면 췌연 살성이 되리니 백성이 췌의 개보쳐여 괴로물 겹다가 췌살육을
 만나 말췌를 업시호고 곁을 만나미라이 제글을 지어니 히를라 성췌백성의 개고시호면
 백성등이 췌연문을 열니라 호고 군정사를 명호야 글백장을 췌살의 디여 성중에 췌니 그
 글에 호야 호스되

㉔ 췌췌췌 보디 원슈 강상은 성췌만민의 개고시호는니이 제췌왕이 황음무도호야 췌남
 을 살해호고 만민을 도란호죄를 황던에 어덧는지라 시고 로우리 췌췌췌왕이 췌명을
 바다독부췌를 췌멸호야 수하에든 백성을 건너라 호는니 성췌인민은 췌의 췌순슈호
 야 성문을 내려와 스를 마즈라 호야 호다라

성췌백성드리글을 보고져 마다 췌놀며 왈 호군이 무도호야 만민을 잔학호더니이 제는
 어두온티를 면호고 북은티를 보리라 호고 췌인이 일시의 나와 슈문장을 췌이 고 성문을
 크게 열고 췌병을 마지니 제신이 급히 췌의 개췌호디 췌병이 오문의 왔다 호거늘 췌티로
 호야 갑옷을 호초고 조인결노 선봉을 삼고 뇌곤 뇌봉으로 췌우익을 삼고 췌췌히 호쇼야 마
 를 타고 문기아리 나와 보니 췌애창 안백발에 갑옷을 호초고 스불상을 타고 무왕압해

잇고 팔백제회각々 병기들을 고좌우에 버려스니 그 위엄이 비할디 업더라 쥐말을 모라
 문과 야리나 오니 머리의 황금봉투구를 쓰고 몸의 쇠조갑의 끈룡포를 써 입고 손의 학선
 도를 가졌시니 흉위 흉용모와 용망이 비할디 업더라 쥐아를 보고 대즐알네 전일집
 의 신해 되엿거늘 엿지 짐을 비반하고 서주를 도아역신이 되느뇨 조애왕 폐해 황음무도
 하야 달의 말을 듯고 녹디를 지어 만민을 도탄하고 만분포락 지형을 지어 총냥을 살해하
 고 직간하는 황후를 눈을 빼고 손을 포락하야 봉하개하고 조신의 안해를 음난코조하다
 가 그릇 죽게하고 화귀인을 루에 밀쳐원스게하고 직간하는 비간에 비를 그르고 날마
 다 살성으로 락을 삼으미련해다 반하야 팔백제회회약업시되여 조민별 죄하미니 누
 를 한하리요하니 여러 장쉬일시에 주를 에워싸고 처되 쥐조금도 두려하미 업고 터적하
 디니 동백후강 문환과 남백후악순이 당선하야 크게 위여 왕살부지슈는 불공디련이라
 하고 다라 들거늘 쥐평성함을 다하야 크게 호소리 지르며 칼을 드리악순을 버혀느리
 치니 남궁팔무길리정양전위회되진즈금탁목탁나 탁신갑신면등 여러 장쉬일제히 위
 여왕 오늘날 혼군을 잡지 못하야 면다시 어니 썩을 기다리々 하야 다라 드러 양전은 되곤
 을 버히고 나탁은 벌조인을 죽이고 위회는 되봉을 버히고 강문환은 쇠치로 주의 등을
 따리니 쥐아 품을 견디지 못하야 말을 도로혀 오문으로 드러가니 제장등이 오문을 써치
 고 드러가라 하거늘 조애금을 처군을 거두니라
 초설 쥐쇠치를 맛고 도라와 탄왕내 전일총간을 듯지 아니하야 오늘날 이다 경을 당하나

가히 앓갑다 성당의 류백년의 내몸에 맞치리로 다하야 고 유체 왕총냥이 임의 진하얏
 스니 엿지도적을 막으며 짐이 중상하얏스니 엿지도적을 막으며 짐이 중상하얏스니 엿
 지다시 조응을 결하리요하야 고 다행에 드러가니 달과 와호회비와 왕귀인 제요정이 맞거
 늘 쥐제미인을 보고 심혼이 참담하야 눈물을 흘리며 달과 드러 왕집이 강상을 업슈이녀
 이다가 오늘이런 난을 만나 강문환에게 짐이 도체를 맞고 조인길등이 다 전망하얏스니
 늘 노더부러 종사를 의논하리요 조종과 업이 짐의 개일으러 망케 되니 짐이 하면 목으로
 전왕을 디하에 띄오리요 만일 희발에 군서궁중에 드러가면 초마옥을 받지 못하리니 너
 희를 영결하고 진을 헛치고 다라나려하노라 달과 울며 주의 스미를 잡고 왕폐해 만일
 다라나라 하시면 첩등도 또 혼싸라 가라하노이다 쥐초마져나지 못하야 고 술을 나와 잔을
 잡고서로 권하야 머리별코조하야 달과 왕첩등이 일즉 비혼도 술이 있스니 혼번적 전에 나
 아가도 적을 파하야 폐하의 은혜를 갑흐라이다 쥐왕이 처만일 도적을 파하면 이는 천고
 의업는 공이라 달과 호희미왕귀인등이 유영업척하거늘 의논하더라 잇썩삼요피 겸영
 홀줄해아 리지아니 크제장으 로더부러 유항복 밧기를 의논하다가 각々 침소로 도라가
 더니 삼경은 하야 광풍이 나려나며 삼외 갑옷을 못초고 손의 창검을 들고 영중의 돌입하
 야 입으로 바탐과 안기를 토하야 좌충우돌하니 잠든 군서동서를 분변치 못하야 고 죽말바
 죽는 지 무슈흐지라 조애놀나 장덕에 올라 바라보니 비린바탐과 누린 안기 조옥하거늘
 삼요의 요술인 줄알고 제장을 지휘하야 죽칠시러 정위회되진조향전금탁목탁나 탁등

이일시에너 다라삼요를에위쓰고시살홀시삼외천년복은요괴라능히싼티를헛치고
 오문을너머드러가니쥬금문왈어체쥬영을겍치하미승취하여오달괴요두왈처음에
 영의드러가겍처하미거의성공홀너니여러장쉬스면으로철통곳치쓰고치미저당처
 못하야게오목숨을도망하야왔노이다쥬유체왈장차엇지하리요이는다나의충간을
 듯지안이흠이라누를한하리요하고티묘를향하야스비하고스미를셀쳐적성루의을
 나즈결코즈하거늘삼외나아가웃슬잡고을며왈페해봉하시면첩등이어디의지하
 라잇고아즉스라리두를보스이다쥬삼요의등을어로만저왈감상이비록궁중의드러
 온들내경등을두고엇지죽으리요홀가지로죽어흔빅이라도곳치단나즈하고편년의
 느러가잔치를비설하고술먹으며왈이잔치마지막이라어니씩다시잔치하리요하
 루쉬여우하거늘삼외술을큰잔의부어셔로권하니쥬대취하야즈거늘삼외셔로니
 로되강상이우리근본을아랏스니잡히면환을만날지라이제도망홀만곳지못하다하
 고각스본형을너여현원모로향하야다라나니라츠설즈애삼요의게피홀군스를거두
 어영치를제우고홀패를엇고제장다려왈만닐더든들이요괴를일홀변하얏다하
 진즈는구미호를잡고위확은옥셔비과정녕을잡아오라삼장이청녕하고도둔법을
 행하야구름속에숨어살피보니이옥고비린바람이이러니며삼외각스보검을쥬고구
 름스이로가거늘삼장이너다라대호왈이업축아닷지말나기다린지오리도다하고다

라드니구미회여성티출왈우리너와원쥬업거늘엇지가는길을막는다하고칼을두루
 며다라들거늘삼장이또하다라드니요괴엇지삼장을티적하리요몸을날녀닷거늘양
 전이호천견을노화구두치의코등이를무러써이니구두치아품을견디고닷거늘삼
 장이급히싸로더니멀니바로보니향운이표사하고셔괴은사하스온디홀남사이청난
 을라고오니이느너와씨남사이라남사이삼요가는길을막아디절왈업축이어디로가
 는다삼외너와씨를보고칼을더지고복디왈남사게셔강남하시디쇼축등이멀니맛지
 못하얏스오니죄를용셔하소서너와씨벽운동즈를명하야박요삭으로삼요를미여쥬
 영으로보너라하니삼외인형이되여올며왈전일남사의명을받즈와은왕을미혹게하
 얏습거늘금일남사이쇼축등을미여스지에보너시나니잇고남사이어성왈내당초의
 성녕은살히오지말나하얏거든너히살싱흔죄를엇지면하리요동즈를저축하야삼요
 를미여양전등을주어쥬영으로보너니삼장이삼요를잡아도라와청녕하거늘즈이
 령하야원문받게너여버힐시호희미왕귀인은버헛스나달괴목에는갈이드지아니하
 야못버한다하거날즈이부작을달괴등에붓치고버혀삼요의머리를원문에놓히다
 라만성인민으로보게하니라
 츠설쥬술을셔여분죽달괴등은간곳업고홀노안졌다니궁녀등이황사급사히왕
 니하거늘쥬놀나연고를무른디궁녀등이올며고왈삼위남사이잔곳업고또궁에
 티반이나업노이다하더니문득궁에드러와고왈삼위남사에머라쥬영에달녜는

이다하거늘 쥐아모리 흘줄 몰나 황々하다가 방성되곡하고 환과 주승 다려왈 짐이 저
 일층 잔을 듯지 아니하고 성령을 만히 살히 호았더니 이제 강상의게 잡히게 되니 짐
 이 만승던 조로 엇지 저슈의 죽으리 요네 셤을 쓰코 불을 노흐라 내 셤우히 안 조 불에 타
 죽으라 하노라 주승이 울며 주왈 이제 불행호오나 참아 엇지 불을 노흐리 잇가 쥐탄
 왈 이는던 쉬라도 망치 못하리 로다 전일 서벽의 점복의 불의라 죽으리라 하더니 오늘
 을 일으미라 누를 한공리 요 쌀니 거 흥하라 하니 주승이 마지 못하야 셤을 쓰고 불을 노
 흘서 쥐곤 면 옷슬 남고 보 비옥을 쥐고 셤우히 단정이 안 조 눈물을 흘니 거 날 주승이 울며
 고 왈 신이 폐하와 혼가지로 불에 죽어디 하의 되시리 이다하고 불의 뒤여 드니 쥐기리 단
 왈 주승은 진짓 총신이로다 하더라 잇셔 주영근식 오문을 도려적 성루로 향 흘서 갑문
 환이 주를 마르쳐 왈 네 스스로 불에 타 죽으니 이던 앙을 마드미 아니 리 요하고 살을 빼여
 쓰니 기동이 불에 반죽 탕더니 살을 마조 문혀 지니 쥐집에 처여 해골 분신하야 죽고 화광
 이 더욱 튕던 하더라 조이 제후를 거느리고 오문을 드러 무왕을 구간던에 좌하 시게하
 고 단을 모호고 혁일하야 무왕을 보위에 올으시게 하고 죽문지어던 디 후로게 처제 흘
 시제를 파하미 상셔의 구름이 이러나니 성대명왕의 창업하는 날이 몰알나 러라 왕
 이던 조위에 나가 가 되스던 하하 시고 제후를 다 본국으로 보느고 총신묘를 표호 시고
 주왕의 신체를 거두어 왕례로 장하고 록티를 허터지 물을 빙성을 호터 주고 주왕의 아
 들 무명으로 성기를 지히여 천사를 받들게 하고 관속 처숙으로 은디를 봉하야 빙성을

다사리 게하고 혁일하야 본국으로 도라올새 성중 백성로 소남녀 업사 올며 성주리 별합
 을 부모며 남갓치 하거 날 왕이 위로 왈 짐의 어데로 대신하야 너의를 무홀케 하얏스니 너
 의 등이 봉공 슈법하면 자연 안락 하리라 하고 자애와 제자 군졸로 더부러 본국에 도라와
 진하를 바든 후 출전 제장을 차례로 봉작 하실새 신장 슈리정 양전 위호되진자 금라 목
 라나 라 등 철인이 주왈 신등이 산야에 잇서 약이나 키든 류읍 더니 사부의 명으로 폐하를
 도와 호군을 쳐바리고 도단에 든 백성을 건지고 자함이 요인 간부 귀는 바반 배아니로 소
 이다 하고 하직하니 왕과 자애 남교에 나와 전별할새 대연을 배 퍼즐기다가 리 별하니라
 각설 마씨 자아의 궁곤함을 업 슈히 녀겨 자아를 배반하고 농부장삼로에 개개 가 하얏더
 니 이 옷로 패마씨 다려 왈 당년의 강자아를 싸라셔기로 갓던들 무한한 복록을 누릴이로
 다 하고 자아의 슈말을 낫스치 일으니 마씨 차연을 듣고 정신이 아득하야 여 쥐여 광타가
 다시 생각하되 후동성 동명이 잇는가 하고 잇더니 장삼 퇴성 중으로 조차 오거 날 마씨 강
 승상의 일을 무른대 삼퇴소 왈 내드른 지 오래되 낭 재알면 번민 할가 말아니 하얏더니 과
 연그러 하거니와 다려 정한 슈니 개회치 말나 하고 재삼위로 하거늘 마씨 드르매 더욱 괴
 운이 막혀 종일 말을 아니하다 가 밤에 들보에 초마신으로 목을 매여 죽으니라 차설 무왕
 이 특별이 태공으로 제왕을 봉하야 제나라 철심여성에 웅거하야 도읍을 임처에 정하고
 궁내 황금축백과 백모 황월을 슈어 정별을 오로지 하야 제후의 어른을 삼으니 자애 드러
 가 조회하고 나라로 갈새 무왕이 백관을 거나리고 교남에 나와 전송하니라 차서 태공이

제국에너르려송이인을생각고이에사신을보내여은혜를표할새황금천근과주속옥
 백을봉하야보내니사신이제국을떠나조가에게송이인을차지니이인부뵈구물하고
 그아들이잇서제물을밧고희셔하야보내다태공이제국한지오상에제나라히크게다
 사러백성이거리사사경양가를부르고산무도적하고도불습유하니런재드르시고래
 관을보내사황금옥백을자로상사하시니부귀영충이천만고에제일일너라사고신과
 하기로대강의록하나니후인은상찰잠실할지어다 (참이러게재미답게잘보시니
 고맙습니다그러나이책보담더재미스려운것을보시려면이책뒤관권장에기록한본
 서팀말행록독을보시고주문하시면갑술짜게하야속사히보내기를자미잇게할뿐더
 러요새말간한사주자해화주역이라는책이잇사은대그내용은옛날당사주의비교할
 배아니요또보시기매우쉽게하야아모라도보시면평생길흉화복을판단하야초년과
 중년말년사지제상에저내가난형상을오색으로그림을그린것시씩신등하고재미잇
 사오니한번사다보시기를바리나이다)

강서공전종

愛人의선을 全一冊 金四十錢	忠義小說李天鳳全一冊 金二十錢	新小説沙村夢全一冊 金四十錢	古代호랑이악기全一冊 金十五錢
日群書翰文獨習全二冊 金七十錢	軍情小說孫龍演義全一冊 金三十錢	사랑이무명 全一冊 金八十錢	悲劇호랑이악기全一冊 金十五錢
尺牘大成 全一冊 金四十錢	歷史小說隋唐演義全一冊 金五十錢	海王星洋裝 全一冊 金四十錢	悲劇洞溪湖 全一冊 金四十錢
雪中山 全一冊 金四十錢	感發小說西廂記全一冊 金五十錢	全半裝 全二冊 金三十錢	悲劇雲娘史全三冊 金三十錢
短編古今奇談集全一冊 金二十五錢	感發小說江上月全一冊 金十五錢	文西漢演義 全四冊 金四十錢	新小説紅浪池 全一冊 金五十錢
楚漢門宴 全一冊 金三十錢	金川寺夢遊錄全一冊 金二十錢	最新日韓唱歌全 集 金三十錢	童話音樂 全一冊 金七十錢
古代蘇大成傳全二冊 金十五錢	歷史小說成三問 全一冊 金十五錢	新小説長恨夢 全三冊 金四十錢	어디로가나 全一冊 金五十錢
新小説三快亭 全一冊 金二十五錢	義俠小說錦囊二山全一冊 金十五錢	寫情小 秋月色全一冊 金二十五錢	歷史道僧四渡堂全一冊 二十錢
古代增修春香傳全一冊 金二十五錢			
歷史崔孤雲 全一冊 金二十錢			
忠義劉忠烈傳全一冊 金三十錢			
陰陽三台星 全一冊 金二十錢			
羅世 全一冊 金三十錢			
節孝松竹 全一冊 金十五錢			
言情 全一冊 金十五錢			
小說美人圖 全一冊 金二十錢			
小說鳳凰琴 全一冊 金十五錢			
古代小說玉樓夢全四冊 金一圓			
歷史紅衣童子全一冊 金十五錢			
小說玉樓夢 全二冊 金九十錢			
歷史大羅大王全一冊 金二十錢			

大正十四年十二月二十日印刷
 大正十四年十二月廿五日發行

강서공定價廿五錢

(不許複製)

著者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七番地
 印刷者 高裕相
 印刷所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二十一番地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七番地
 新文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七番地

東書館

電話光化門一五五八番
 振替口座京城七一三番

戀愛 小說 月 世界

定價 五十二錢

집은 아팠은 말은 가을을 향난 방공에 두렷히 울려서 샷슈(戔州) 강상의 처면 니 화이 는 성벽에 비취 버던 풍 그늘과 도가 후음한이 때에 발안 잠환유천으로 머리를 짚은 등이고 온에는 는 기를 들었스니! 이것지 된 일인고!

歷史 小說 鰲 城 奇 談

定價 五十二錢

조선 사람이면 누구는 저과 알것입니다. 누구이 것들었가 오정 부원군 말인 노영지 이어루에 대하야는 장황스런게 두어이니 무엇이니 고 저를 들었 부원군의 그 단을!

戀愛 小說 花 桃 花

定價 十三錢

아주 버니 오섯을 넘겨 오려 간대 의 음했습니다. 이 성 들 어 오셔요. 이와 가리 말하 는 이 들 더 유 너 지 도 허(桃花) 는 두 방에 복 초 화 의 피 었 습니다. 피 인 을 응 스 니 도 희 의 음 명 이 었 니 도 제 습 니 가?

歷史 小說 李 活 亂 及 丙 午 亂

定價 五十三錢

이대(一大) 전장! 참! 참은 해하 스나? 참! 로 무 세 운 자 줄! 리 팔은, 설 조해부신(武臣)이 었 리 팔이 병을 영(靈) 濼이 서 일 이 커 가 지 고 승 등 장 구의 크게 온 전 군 하 아 나 아 기 는 그 그 세! (一) 다 시 버 거 면! 더 기 에 다 말 기 아니 할 디 그 리 니 아 두 자 줄 이 조선 사람 에 게 었 더 현 영 향 을 주 었 습 니 가?

戀愛 小說 烏 鵲 橋

定價 十三錢

해마다 칠월칠석이 되면 천우성과 좌녀성이 서로 만날 적에 오작교를 건너 다는 말은 과야 될 것일 니 단월이 리 광해루 과 현 두 영 화 소 작 교 가 있 스 니 이 는 구월칠일이면 신전각 줄 닌 너 가 이 오 작 교 에 서 맞 습 스 니 이 진 천 가 는 닌 너 는 누구이 것들 니 가? 아! 달을 한 사랑 의 속삭 이 는 이 두 닌 너!

戀愛 小說 梅 香

定價 十五錢

매의 향! 연마나 아 들 더 유 고 고 호 일 음 이 나 몇 번 이 라 도 흐 러 보 아 도 아 들 다 음 일 들 아 화 가 들 음 을 가 친 니 는 누구 인 가. 었 더 현 화 교 에 서 처 는 하 학 중 소리 가 다 조 교 문 의 매 의 지 게 니 우 는 학 생 들 등 아 여 너 니 는 너 현 생 현 사 람 이 었 스 니 이 분 이 호 소 설 의 문 제 이 들 인 매 향 이 더 보 리! 매 향 의 일 편 을!

戀愛 小說 愛 情

定價 五十二錢

잠입 만 호를 눈엍내려다 보는, 남산공월애도, 우해가 조종된 천자와와 심이 별리 말라하, 절세미인이었스니! 이 는 닌 너 가 었 지 하 아 이 또 지 었 는 코이 무 리 하 더 두 리 는 모 음 것 이 다. 보 리! 애 정 이 었 는 사 람 이! 사 람 의 편 편 으 로 해 매 이 고 었 는 사 람 들 은 디! 오라!!

歷史 小說 太 祖 大 王

定價 十二錢

함정도 영웅은 독적의 애취와 위인이 나왔스니 성은 리요 화는 성계(成桂) 니서 려의 절입 전 삼배 삼설 오년고려 충수 두 원 삼 원 을 해 니 셸 다. 니 서 고려 에 투 하 시 디 니 절 절 절 아 자 자 그 의 는 세 를 쫓 고 구 는 그 고 임 은 그 고 는 설 은 그 설 것 고 기 고 고 는 면 하 정 사 니 지 처 이 절 절 절 이 일 는 처!

發行所 滙東書館 京城南大門一通 丁一十七番地 振光 替京 一五八番